

제8강 문장력 강화 I

(1교시)

▲ 어휘력이 문장력의 기본이다

가. 정확한 어휘를 구사하자.

- **가르치다** - 지식, 기능 따위를 가지도록 알아듣게 설명하여 인도하다
예> 소설을 쓰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 **가리키다** - 손가락 따위로 지시하거나 알리다.
예> 시계바늘은 정각 여덟 시를 **가리키고** 있다.
- **가름** - 함께 하던 일을 서로 가르기(구별, 분별)
- **갈음** - 같은 것으로 바꾸어 대신함.
예>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축사를 **갈음**합니다.
- **갑절** - 어떤 수나 양을 두 번 합친 것.
- **곱절** - 같은 수나 양을 여러 번 합친 것. {갑절 = 두곱절, 세갑절(×), 세곱절(○)}
- **결단** - 딱 잘라 결정하거나 단정을 내림.
- **결판** - 일이나 사물이 아주 망그러져 도무지 손을 쓸 수 없게 된 상태.
- **너머** - 집, 담, 산, 고개처럼 높은 것의 저쪽
- **넘어** - 동사 '넘다'에 연결어미 '-어'가 붙은 것. 넘어가는 동작을 뜻함.
- **떠다** - 어떤 성질을 가지다.
- **띄다** - '뜨이다'의 준말
예> 그의 소설이 목가적인 분위기를 띄고 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 **그 밖에**.....
맞추다/맞히다, 매기다/메기다, 매다/메다, 묻히다/무치다, 붙이다/부치다, 빌다/빌리다
빠르다/이르다, 살지다/살찌다, 작다/적다, 조리다/줄이다, 첫째/첫 번째, 탓/덕분/때문
한참/한창 등
- **결제** - 증권 또는 대금 수수에 의해서 매매당사자 간의 거래 관계를 끝맺음
- **결재** -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재량하여 승인함.
- **곤욕** - 심한 모욕

예> 곤욕을 치르다, 곤욕을 겪다.

- **곤혹** - 곤란한 일을 당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다.

예> 날카로운 질문에 곤혹스러웠다.

- **반증** - 반대되는 증거.

- **방증** - 주변상황을 밝힘으로써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

- **운명** - 사람의 목숨이 끊어짐.

- **유명** - 어둠과 밝음, 저승과 이승.

운명하다 = 유명을 달리하다. 운명을 달리하다(×)

- **일절** - 아주, 도무지, 결코, 전혀.

예> 외상 일절 사절.

- **일체** - 모든 것. 온갖 사물.

예> 안주 일체.

- **조종** - 기계, 항공기 따위를 다루어 부림. 남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어 부림.

- **조정** - 분쟁을 중간에 서서 화해시킴.

그 밖에.....

배상/보상, 보전/보존, 부문/부분, 시험/실험, 운영/운용, 자질/재질, 재연/재현
지향/지양, 차선/차로, 참석/참가/참여 등

나. 속담, 격언 등 관용적 표현을 익히자.

-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
- 가마 타고 시집가기는 다 틀렸다
- 나무도 쓸만한 건 먼저 베인다
- 번개가 잦으면 천둥한다
- 오뉴월 불도 쪼다 나면 섭섭하다
- 하룻밤을 자도 만리성을 쌓는다
- 가을 좇은 무쇠도 뚫는다.
- 계집 둘 가진 놈 똥은 개도 안 먹는다.
- 계집과 말은 타봐야 안다.
- 과부 씹두덩은 과부가 찢는다.
- 과부 좇 주무르듯 한다.
- 국 쏘고 보지 데고, 탕기 깨고 서방한테 매 맞는다.
- 남자 술은 장모가 따라도 여자가 따라야 맛이 더 난다.
- 남자는 늙어도 짙 한 단 들 힘만 있으면 계집질한다.

(송재선 「상말속담사전」에서)

다. 사전을 활용하자.

<국어사전>
<우리말 갈래사전>
<상말속담사전>
<문장표현사전>
<소설어사전>
<국어어원사전>
<남북한말사전>
<이조어사전>

라. 나만의 어휘사전을 갖자.

예)

<숫자와 단위를 나타내는 말(웃)>

- 오리 - 실, 가는 대 같은 것을 세는 단위
- 땀 - 바느질에서 바늘로 한 번 뜬 눈.
- 벌 - 옷이나 그릇의 짝을 이룬 단위
- 채 - 집, 이부 자리를 세는 단위
- 새 - 피륙의 날을 세는 단위
- 토리 - 둥글게 실을 감은 뭉치.
- 타래 - 실이나 고삐를 감아서 틀어 놓은 분량의 단위. 테.

<돼지 부위별 이름>

- 삼겹살 - 복강지방을 제거하고 허리쪽 끝부분의 지방을 제거하고 피하지방 5mm 이하로 제거하여 직사각형으로 정형한 것.
- 안심 - 복강 지방과 건을 떼어내고 표면 지방을 제거 정형한 것.
- 갈비 - 가슴쪽 연골 부분의 근막과 지방을 제거하고 방혈시 발생된 혈흔을 제거 정형한 것.
- 등심 - 등지방을 분리하고 앞면과 뒷면의 피하지방을 두께 5mm이하로 정형한 것.
- 사태살 - 하퇴골을 감싸고 있는 근육을 근막을 따라 불기살, 설깃살과 분리 후 정형한 것.
- 어깨등심(목심) - 목뼈 부분의 지방덩이와 건을 제거, 방혈시 발생한 혈흔을 깨끗이 도려내고 피하지방을 5mm 이하로 정형한 것.
- 갈매기살 - 늑골안쪽의 횡격막을 절단, 지방 제거 후 정형한 것.

해설)

- 책을 읽다가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 따로 적어두고 반복하고 익혀 내 것으로 만들자.

- 예문처럼 주제를 정해 자신만의 노트를 만들어 정리해두자.
- 특히, 돼지 부위별 명칭의 경우 사진과 곁들여 자신의 어휘사전에 정리해 두면 보기도 좋고 이해도 빠르다.

※ 어휘를 정리하는 방법의 실례

<빙열>

예문) 잘 구운 도자기에 생긴 **빙열** 같은 균열이 시작되었다.

- 손끝으로 찻잔을 더듬었다. 그 가느다란 빙열마저 느껴지는 듯했다.

빙열 - 국어사전에 없음. 빙렬(氷裂)<얼음의 표면에 갈라진 금모양의 무늬.>과 한자는 같으나 뜻은 다름. 일반적으로 도자기를 구울 때, 점토와 유약의 수축률이 달라 잔금이 생기는 현상을 일컬음.

<생목>

예문) 그때 나는 숙취 탓에 **생목**이 잡혀 목소리마저 킁킁했을 거야.

- 그는 생목이 오르는지, 새우처럼 허리를 잡고 킁, 킁 소리를 냈다.

생목 - 입으로 되치밀어 오르는 삭지 않은 음식물이나 위액. 생목이 잡히다, 생목이 오르다.

해설) 어휘를 정리하는 방법

1. 위의 방법처럼 자신이 ‘발견’한 어휘를 정리하는 방법.
2. 국어사전을 놓고 그부터 차근차근 넘기며 정리하는 방법.

▲ 감염된 언어 - “핸들 이빠이 돌려라.”

가. 현학적인 한자어

- 한자어 : 잘 쓰면 문장을 맛깔스럽게 만들어주지만, 잘 못 쓰면 가독력을 해치고, 의미를 더욱 모호하게 할 수도 있다. 한자어는 되도록 피하자.
- 현학적인 한자어는 퇴고의 과정에서 찾아내는 방법이 일반적(퇴고를 하면서 한자어에 밑줄을 긋고, 그 어휘와 바꿀 수 있는 적당한 우리말을 생각해 보자)

나. 쓰메끼리

ㄱ. 일본식 한자어

- 낭만(浪漫) - 로망의 일본어 한자식 표현. 말 그대로는 아무런 뜻이 없는 음차임.
- 국민(國民) - 고쿠민(國民)의 음역. 영어 낱말 nation이 가진 역사성을 휘발시킨 어휘.
- 산소, 수소, 질소, 탄소, 불소 등 원소명
- 공소, 기소, 형사, 민사, 소송, 항소, 헌법, 형법, 민법, 등의 법률용어
- 시민, 권리, 개인, 사회, 회사, 국가, 선거 등 서구의 근대적 개념들
- 사장, 회장, 부장, 과장, 실장, 계장 등 조직에 관한 용어들

: 근대적인 용어들이 모두 일본식 한자어로 수입된 결과로, 이런 용어들을 고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언어 순화의 예 >

- 고수부지(高水敷地) → 둔치
- 공해(公害) → 오염
- 조건표(早見表) → 일람표, 환산표
- 혹성(惑星) → 행성, 유성, 떠돌이 별
- 감안(勘案)하다 → 살피다, 고려하다, 생각하다, 참작하다
- 기라성(綺羅星) → 샛별같이 빛나는, 은하수처럼
- 납득(納得)하다 → 이해하다
- 대합실(待合室) → 대기실, 기다림방
- 수순(手順) → 절차, 차례
- 십팔번(十八番) → 장기, 애창곡, 잘 부르는 노래
- 애매(曖昧)하다 → 모호하다
- 촌지(寸志) → 작은 정성, 마음의 표시
- 할증료(割増料) → 웃돈, 추가금
- 간발(間髪)의 차이 → 종이 한 장 차이, 터럭 하나 차이
- 석식(夕食) → 저녁 밥
- 윤중제(輪中堤) → 방죽
- 일가견(一家見) → 전문적인 지식
- 중차대(重且大)하다 → 심각하다, 중대하다

ㄴ. 고유 일본어

가다→가짜
가오→얼굴, 체면
고데→인두, 지짐머리
꼬봉→부하
나가리→무효
다꽝→단무지
다대기→다진 양념
도비라→속표지
모찌→떡
쏘부→홍정, 결판, 승부
아나고→붕장어
에리→옷깃
우와기→상의
후까시→힘

예문)

저도 한 때는 별명이 쓰메끼리였어라우. 똑 소리나게 일을 잘 한다고 말이어라우.

ㄷ. 일본식 외래어

- 난닝구→런닝셔츠
- 다스→몹시 dosen
- 만땅→가득 채움 tank
- 빠께스→양동이 bucket
- 빠꾸→뒤로 back
- 뽕끼→페인트
- 빼라→전단 bill
- 엑기스→농축액 extract
- 자꾸→지퍼 zipper
- 후앙→환풍기 fan

ㄹ. 축약된 외래어

아파트, 텔레비, 도란스, 미싱, 포르노, 마이크, 메모, 테러, 파마, 레지, 리모콘

ㅁ. 그 외 외래어

- 중국어 - 우동, 가방, 잉꼬, 장쥬뽕, 단스, 라면
- 포르투갈어 - 카스테라, 담배, 텀뿌라, 빵
- 스페인어 - 메리야쓰
- 네덜란드어 - 고무, 뽕끼
- 프랑스어 - 쓰봉, 부라자, 쉼무가족, 낭만
- 독일어 - 코펠

(2교시)

▲ 아름다운 우리말 살려 쓰기

가. 되살려 쓸 토박이말

- 가래다 : 맞서서 옹고 그름을 따지다.
- 가리사니 :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이나 실마리.
- 가말다 : 일을 잘 헤아려 처리하다.
- 가멸다 : 재산이 많고 살림이 넉넉하다.
- 간동하다 : 잘 정돈되어 단출하다.
- 고갱이 : 사물의 핵심.
- 곱살긋다 : 성질이 부드럽고 다정하다.
- 구순하다 : 말썽 없이 의종게 잘 지내다.
- 꺾지다 : 억세고 용감하고 과단성이 있다.
- 능 : 넉넉하게 잡은 여유.
- 도스르다 : 무슨 일을 하려고 벌려서 마음을 가다듬다.
- 듬쑥하다 : 사람의 됴됨이가 가볍지 않고 속이 깊고 차 있다.
- 마뜩하다 : 제법 마음에 들다.
- 머드러기 : 많이 있는 과일이나 생선 가운데서 크고 굵은 것.
- 미쁘다 : 믿음성이 있다. 진실하다.
- 버리 : 그물의 위쪽 코를 꿰어 오므렸다 폈다 하는 줄. 일이나 글의 가장 중심되는 줄거리.
- 소담하다 : 음식이 넉넉하여 먹음직하다. 생김새가 탐스럽다.
- 습습하다 : 사내답게 활발하고 너그럽다.
- 아귀차다 : 뜻이 굳고 하는 일이 야무지다.
- 안다미 : 남이 져야 할 책임을 맡아짐.
- 안차다 : 겁없고 당돌하다.
- 알심 : 은근히 동정하는 마음. 보기보다 야무진 힘.
- 알짬 : 여럿 중 가장 중요한 내용.
- 알친 : 재물 가운데 가장 값나가는 물건. 음식 가운데 가장 맛있는 음식.
- 암팡지다 : 몸은 작아도 힘차고 다부지다.
- 여낙낙하다 : 성미가 곱고 상냥하다.
- 오달지다 : 야무지고 실속이 있다.
- 웅골지다 : 실속 있게 속이 짝 차다.
- 우듬지 : 나무의 꼭대기 줄기.
- 조리차하다 : 물건을 알뜰하게 아껴서 쓰다.
- 조치개 : 어떤 것에 응당히 딸려 있어야 할 물건.(밥에 딸려 있는 반찬 따위)
- 중요롭다 : 없으면 안 된 말끔 요긴하다.
- 좃대잡이 : 중심이 되는 사람.
- 천세나다 : (어떤 물건이)사용되는 데가 많아서 꼭 귀하여지다.

- 첫뵈 : (행동이나 일을 시작해서)맨 처음의 국면.
- 타올거리다 : 뜻한 바를 이루려고 애를 쓰다.
- 들거지 : 듻직하고 위엄이 있는 겉모양.
- 푼더분하다 : 얼굴이 두툼하여 탐스럽다. 여유가 있고 넉넉하다.
- 함초롬하다 : 가지런하고 곱다.
- 함함하다 : 털이 부드럽고 윤기가 있다.
- 허벅지다 : 탐스럽게 두툼하고 부드럽다.

위의 낱말들을 사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나. 우리말 어휘사전 만들기

- 가랑가랑하다 - 얼굴이 야윈 듯하면서도 부드러워 보인다.
- 감승하다 - 드물게 난 짧은 털이 가무스름하다.
- 귀접스럽다 - 사람이 추하고 지저분하다.
- 까마무트름하다 - 얼굴이 까맣고 두툼하게 토실토실하다.
- 깨나른(깨느른)하다 - 기운이 없어 늘쩍지근하다.
- 나부대대(너부테테)하다 - 얼굴이 둥그스름하고 나부죽하다.
- 나슨하다 - 심신이 풀어져 긴장됨이 없다.
- 매초롬하다 - 젊고 건강하여 아름다운 태가 있다.
- 밀알지다 - 얼굴이 뽀뽀하게 생기다.
- 비영비영하다 - 병으로 인하여 몸이 몹시 파리하고 기운이 없다.
- 살망하다 - 아랫도리가 가늘게 상큼하다. 옷의 길이가 키보다 좀 짧다.
- 해반주그레하다 - 얼굴이 해말썽하고 반주그레하다.

※ 우리말 어휘사전을 만들 때에는 자신만의 방식이 필요하다. 자신만의 어휘사전을 갖는 건, 자신의 어휘로 익히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 의성어 의태어를 활용하라

가. 빈칸의 낱말을 지우고 읽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비교해 보자.

눈에서는 (드문드문) 모를 찢고, 더러 상자에 담아서 모를 이앙기로 냈다.
 소장은 실내화를 (찍찍) 끌고 먼저 갔고, 그는 물건을 옆구리에 끼고 그 뒤를 따랐다.
 스물도 채 못 됐을 얼마 가시내가 값비싼 운동화를 뒤축을 작신 분질러서 (질질) 끌고 서로 허리를 껴안고 킬킬대면서 달려들었다.

(서정인 「모구실」에서)

나는 그가 좋았지만 선뜻 다가가지 못해, (비실비실) 웃으며 계속 그 주위를 알찼거렸다.

운동장은 아이들의 흥분과 응원,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찌렁찌렁한) 음악으로 왕왕거렸다.
(김애란 「스카이 쿵쿵」에서)

손가락을 찾아든 동생들이 텔레비전 바로 앞자리를 차지하려 밀치고 밀리며 투닥거리는 동안 나는 월간 여성지 두께만 한 상식책을 펼쳐놓고 (건성건성)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실오라기가 공중에 떠다니다가 국 그릇에 날아와 (둥둥) 뚧다. 그렇게 어머니라는 단어를 치고 있자면 어머니라는 껍데기에서 알맹이만 (호로록)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하성란 「1984년」)

나. 다음 빈칸에 적절한 낱말을 넣어보자.

까치발을 들고 교방을 () 빠져나온 오 마담과 채련은 냄새를 따라 부엌으로 숨어들었다.
진달래 꽃잎을 찹쌀전 위에 한 장씩 얹고는 엄지로 지장 찍듯 꽃잎을 () 눌렀다.
채련의 얼굴에 웃음이 번지기 시작하면 (), 어금니 사이로 터져 나오던 천진한 웃음소리가 잊히질 않았다.
타박네는 솟구치는 울화도 삭이고 입도 행글 겸 찬물을 () 들이킨다.
(이현수 「부용각-신기생던7」)

각자 생각해 보세요.

원문의 답) 살금살금, 꺾꺾, 킁킁, 벌컥벌컥

다. 다음 문장의 적당한 곳에 의성어, 의태어를 넣어보자.

- 그가 눈살을 찌푸리자 그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다.
- 그가 고함을 치자 그의 목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퍼졌다.
- 내 그럴 줄 알았다. 조심성 없이 나대더니 꼴좋다!
- 펑 졸렸던 모양인지, 그는 눈을 감았다 뚧다 하고 있었다.
- 자동차가 지나가자 길가의 개구리들이 연못으로 뛰어들었다.
- 손수레를 뒤집자 실려있던 공구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쏟아졌다.
- 비가 그치자, 그는 곤죽이 되어버린 황톳길을 걸어갔다.

→

- 그가 눈살을 찌푸리자 이마에 (오글오글) 주름이 잡혔다.
- 아닌 밤중, 그의 괴성이 (우렁우렁) 온 동네를 울렸다.
- 내 그럴 줄 알았다. 조심성 없이 (지망지망) 나대더니 꼴좋다!
- 펑 졸렸던 모양인지, 그는 (끄떡끄떡) 눈을 감았다 뚧다 하고 있었다.

- 자동차가 지나가자 길가의 개구리들이 (담방담방) 연못으로 뛰어들었다.
- 손수레를 뒤집자 실려있던 공구들이 (왈강달강) 요란한 소리를 내며 쏟아졌다.
- 비가 그치자, 그는 곤죽이 되어버린 황톳길을 (찹찹찹) 걸어갔다.

* 어휘의 뜻

- 오글오글 : 짧고 좁은 주름이 많이 잡힌 모양
- 우렁우렁 : 소리가 크게 울리는 모양
- 지망지망 : 조심성 없고 경망하게 나부대는 모양
- 꼬먹꼬먹 : 눈을 감았다 떴다 하는 꼴
- 담방담방 : 연해 담방거리는 소리
- 왈강달강 : 여러 개의 단단한 물건이 어수선하게 서로 부딪치는 소리
- 찹찹찹 : 흙이나 풀 등을 짓이길 때 나는 소리

※ 의성어와 의태어 - 부사어로, 주로 서술어를 꾸며주기 때문에 속도감을 높여주고 생생하게 느낌을 전달해주는 기능을 함. 적절한 의성어, 의태어는 문장에서는 일종의 화룡정점.

▲ 어감의 차이를 활용하라

- 나는 그의 **오련한** 눈동자 위로 덧게비 치며 날아든 과거의 그림자를 보고 있었다.
- 온 몸의 힘을 풀고 숨을 멈추었다. **나스한** 상태로 몰입해갔다.

1. 아련하다 : 분명하지 않고 희미하다.
오련하다 : 보일 듯 말 듯 희미하다.

2. 느슨하다 : 늘어져 헐겁다.
나스하다 : 늘어나서 헐겁다.

※ 의미는 같으나 큰말과 작은말이 갖는 미묘한 어감의 차이를 활용하라. 의성어, 의태어의 경우 모음만 바뀌어도 다른 느낌을 준다. (너무 익숙해 식상해진 낱말들도, 그 본디말의 큰말이나 작은말로 대체하면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다)

▲ 다양한 문장을 구사하라

가.

예1)

고학을 했던 답임은 비교적 이해심이 많은 인물이었다. 힘내거라. 내가 잘, 처리해주마. 해서 나는 1교시를 빼먹는 학생이 되었고, 덕분에 다시금 푸시맨 일을 하게 되었다. 나는 다시 전 인류의 물결을 감당해야 했고, 그 속에서 마치 부유하는 미역줄기와도 같은 아버지를 대면하기 일쑤였다. 맞다, 내 정

신 좀 봐. 아버진 그때 점심을 어떻게 했을까? 굵은 걸까? 즉, 도시락의 무게만큼 가벼워진 아버지를 나는 밀고, 또 밀었다. 그 가을의 찬바람 속에서 내 손에 밀리던 아버지는 때로 웅크렸고, 때로 늘어졌으며, 때로 파닥이는, 그런 느낌이었다. 문득, 아침바람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

(박민규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에서)

해설) 이 예문에 사용된 다양한 문장 형태와 수사법

: 평이한 문장, 쉼표를 사용한 문장, 직유법, 의문문, 반복, 열거 등.

예2)

어린이용 아니니? 여자친구가 핀잔을 줬지만, 그 도련님과, 그 스페셜이 무엇보다 나를 자극했다. 도련님 세트의 구성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1. 수프
2. 샐러드
3. 소시지와 베이컨
4. 꼬마 스테이크+라이스
5. 포테이토
6. 야쿠르트

뭐야 그게, 난 본드라도 먹은 줄 알았는데. 내 생각도 그래, 정말 이유를 모르겠어. 가우똥 고개를 찢히는尹에게 나는 책을 내밀었다.

(박민규 「야쿠르트 아줌마」에서)

해설) 인용에 제한을 두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꺼려하지 말고, 기존의 문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표현들을 나름대로 경험해 보라.

나.

예)

할아버지는 자신이 전봉준을 따라다니던 시절을 침 튀기며 이야기하곤 했는데, 썸을 헤아리게 된 이후로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할아버지 말이 사실이라면 최소한 지금 나이가 백 살하고도 열 살은 넘어야 했다. 하지만 최복남은 채 일흔도 넘기지 못한 나이다.

해설)

인물을 지칭하는 대명사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 그녀, 인물의 이름 등을 반복하는 게 지겨운 때도 있다. 그런 경우, 인물의 특징을 이름을 대신하는 명사로 사용해도 좋다.

- 청바지를 입은 사람 - 청바지
- 머리핀을 한 사람 - 머리핀
- 권터그라스의 <양철북>, 아고타 크리스토프의 <존재에 관한 세 가지 거짓말> - 독자로 하여금 화자를 혼동하게 하는 의도적인 표현 사용. 그만큼의 효과를 얻음.
- 손홍규 선생님 - 그녀라는 명사 대신 '그'만을 고수. 보편적이지 않은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자.

